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 초록마을

초록마을은 국내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유통을 돕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촌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1999년 설립되었다. 우리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유해 요인인 농약과 화학비료, 화학 첨가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계하고 좀 더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앞으로도 초록마을은 'CHOROC MEANS ORGANIC'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건강한 내일을 향해 정진할 것이다.

CHOROC MEANS ORGANIC
SINCE 1999

초록마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선택, 초록마을

초록마을은 2002년 마포 1호점을 시작으로 2004년 100호점, 2005년 200호점을 오픈하고, 2017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성장을 이룩해 온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로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체 식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하여 '방사능검사', '미생물검사', '중금속검사' 등 수준 높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식품안전기준인 '초록개런티'를 도입,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초록마을은 소비자에게 자연친화적으로 키워내고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먹거리를 제안하고,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판매활로를 제공하여 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제안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 No.1 브랜드 초록마을의 역사는 대한민국 유기농 산업의 역사이다. 초록마을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을 건강한 먹거리로 연결함으로써 다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우리의 씨앗을 바탕으로 우리의 음식, 우리의 농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이음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이음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야기로 진행한 토종곡식 펀딩을 통해 우리 씨앗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겐 안정적 재배환경을, 고객에겐 우리 씨앗을 지키고 농가를 지원하는 가치 있는 활동과 토종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증가는 우리 땅에서 농약과 화학비료가 사라져 점차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초록마을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와 안전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우리 가족과 환경을 위한 건강한 식탁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할 계획이다.

CEO INTERVIEW

㈜초록마을
대표이사
김 준 규

초록마을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에 11회 선정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유기농 No.1 기업'이 되고자 하는 초록마을은 지난 21년간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느 업체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먹거리는 신뢰입니다. 지금의 고객 사랑에 자만하지 않고 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전해드리기 위해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